

문 대통령 공약사업 이제와 공모라니... 허탈한 전남도

먹구름 낀 '장성 심혈관센터'

전남지역 숙원 사업인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국립심혈관센터) 건립사업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주-전남 상생 공약이자 국정 100대 과제 중 하나인데도, 관련법 개정과 재원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려는 움직임마저 감지되면서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립심혈관센터 설립과 관련,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방식으로 후보지를 선정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상이 걸렸다.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은 총 3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광주 첨단연구개발특구 내 장성 나노산업단지 일원 33만㎡의 부지에 연구센터, 연구병원(500병상), 예방·재활센터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광주-전남 상생공약'으로 채택한 데 이어, 정권이 들어서던 뒤 100대 국정과제, 국정 5개년 계획에 포함됐으며 지난 2017년 말 더불어민주당 이기재 의원(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중심으로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근거가 될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전남대병원 등 전국적으로 14개 권역별

예비타당성 용역 끝낸 복지부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 움직임

전남도 "10년 노력 했는데..."

심혈관센터가 있지만 이를 총괄할 국립심혈관센터가 없어 설립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전남은 여기에 노인 인구 비율(21.9%)과 사망률이 높은 지역적 필요성과 연관산업 집적도, 국가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해 유치에 절실하며 민주당과의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관련법 개정과 예산 반영 등 꾸준한 유치 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공모가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남도 등은 사실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7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호남권 설치를 비롯한 보건-복지 분야 지역 현안 사업을 건의하기도 했던 터라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당장, 접근성·편리성·인프라 등을 고려한 기본적 평가 기준이 반영될 경우 다른 지역과의 입지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복지부 공모가 이뤄질 경우 충북 오송과 대구의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이 입지 경쟁에 뛰어 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남대 측은 복지부가 공모 방침을 명확히 밝힌 게 아닌 만큼 복지부 입장을 예의 주시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례보고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 신속 통과 및 재정 조기 집행과 함께 기업투자 심리가 살아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급선무"라며 "현장 소통을 강화해 투자 애로사항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하며 애초 대통령 공약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이날 오후 서울에서 '국립심혈관센터 구축 방안 토론회'를 열고 '국립 심혈관센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靑 인사수석 교체로 '분위기 일신' 문재인 정부 3년차 국정동력 확보

새 인사 라인 다음 개각 준비 '원년수석' 중 조국만 남아 검찰총장 등 '새 얼굴'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인사수석을 전격 교체하면서 공직 분위기를 일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른바 '5대 권력기관' 중 하나로 꼽히는 국정청의 수장을 교체한 것이나 새 법제처장을 임명한 것 역시 이런 쇄신 행보의 일환으로, 집권 중반 국정운영 역량을 살리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최근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등 공직 기강 문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최근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이날 국정청장·법제처장·청와대 인사수석을 교체하며 흐트러진 기강을 다잡고 국정에 매진하자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특히 이번 인사에 공직후보자 추천 업무를 담당하는 청와대 인사수석이 포함됐다는 점을 두고, 집권 3년차를 맞아 진행된 인적교체 작업이 일단락되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아직 청와대 일부 비서관급 인사 등이 남아있긴 하지만, 지난 23일 9개 부처의 차관급 인사가 교체된 데 이어 이날 차관급 3명의 인선이 추

가로 발표되며 조직 준비가 어느 정도 매듭지어지는 모습이다.

7~8월께로 예상되는 다음 개각 준비는 김외숙 신임 인사수석 등 새로운 인사라인이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타이밍을 잡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현욱 인사수석을 교체한 데에는 그동안 야권의 공세 대상이 된 '부실 인사검증' 논란 역시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앞서 3·8 개각 당시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주석보유 의혹 등으로 야권에서는 이른바 '조-조 라인(조국 민정수석·조현욱 인사수석)' 사퇴 주장이 터져 나왔다.

이번에 조현욱 수석이 교체됨에 따라, 청와대 내 수석보좌관들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임명된 '원년 멤버'는 조국 수석 한 명만 남게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한 KBS 특집대담에서 조 수석의 거취에 대해 "정치를 권유할 생각이 전혀 없다. (권력기관 개혁을)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았는데 그것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국 수석은 당분간 청와대를 떠나지 않으리라는 예상도 나온다. 그러

나 일부에서는 조국 수석에 대한 총선 차출론이 계속될 경우, 조 수석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취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아울러 새 인사수석에 임명된 김외숙 법제처장의 경우 '법무법인 부산'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는 점, 최근 청와대를 떠난 김형연 전 법무비서관이 법제처장 자리를 채우게 된 점 등에 대해서도 야권 일각에서는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 등의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한편, 국정청장 교체로 집권 중반기 권력기관 수장 자리가 잇따라 새 얼굴로 채워지는 점 역시 눈여겨볼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승호 국정청장의 후임으로 김현준 현 서울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관가에서는 내부 승진 인사를 통한 조직 안정성 제고를 꾀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문무일 검찰총장 역시 7월 말로 임기를 마치며, 검찰총장 후보추진위원회는 최근 후임자 천거 작업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같은 권력기관 수장들에 대한 인적 교체가 공직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광주에 '케이팝 스타의 거리' 조성된다

2021년까지 37억원 투입

문화전당 마실길 한바퀴 사업

핸드프린팅·포토존 등 들어서



화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며 관광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은 세계 한류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케이팝 스타의 거리 조성사업과 기존의 도심관광트레일 프로그램의 편익을 위한 관광 안내 시스템 구축으로 나눠 추진된다.

케이팝 스타의 거리 만들기와 함께 총장로에 스타와 팬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간인 '더팬존(The Fan Zone)'도 만든다. 케이팝 스타의 거리는 방탄소년단(BTS) 제이홉, 유노윤호, 수지 등 광주 출신 케이팝 스타들이 활동했던 동구 충장로 구 학생회관 뒷골목에 조성된다. 이 거리에는 ▲케이팝 스타 핸드프린팅 ▲벽화 포토존 ▲히스토리 포토월 ▲휴식 쉼터 등이 들어선다. 시민들의 보행 환경도 개선한다.

더팬존은 케이팝 스타와 팬들이 직접 기획하고 연출한 작품들을 전시하는 '스타 전시-체험 공간'으로 금남로 공원과 지하상가 등 4곳에 꾸며진다. 숨은 아이돌 찾기 콘텐츠는 광주 곳곳의 상점 간판과 도로, 담벽 등에 스타의 캐릭터를 피규어 등 다양한 형태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광주만의 독특하고 특화된 관광콘텐츠로 꾸민다.

광주시는 케이팝 스타의 거리, 더팬존, 숨은 아이돌 찾기 등 케이팝 콘텐츠의 내용과 명칭은 시민 공모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광주 도심관광트레일 프로그램의 관광객 편익을 위해 도보 코스별 관광 종합안내판을 설치한다. 광주시는 12월 문화전당 마실길 한바퀴 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 2021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가까운 무안에서 출발해요~ 이제 편리하게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푸~우~욱~

믿고가는 조이투어에서 여름휴가! 떠나세요~!♥

무안 ↔ 후쿠오카 큐슈 최대 도시

매주 월,수,금,일 출발

◆ [2박3일] 399,000원~ / [3박4일] 699,000원~

특가 & 집중모객

- ◆ 오이타 초특가 6/10 출발 299,000원 / 6/12,19일 출발 349,000원!!
- ◆ 다낭(베트남항공) 6월 출발 399,000원 / 7월 출발 499,000원
- ◆ 방콕(제주항공) 6,7월 출발 399,000원~

무안 ↔ 나트랑(젯스타항공)

7월 26일 부터 총 10항 출발

[나트랑/달랏] 3박5일 799,000원~

무안 ↔ 오이타 살랑~살랑~ 불바람 타고

매주 월,수,금 출발(최소인원 7명 이상 출발보장)

- ◆ [6/10,12,19일 출발] 초특가 벳부&유후인 3일 299,000원~
- ◆ [월/수 출발] 오이타 벳부&유후인 3일 399,000원~
- ◆ [금 출발] 벳부&유후인&야나가와 벳놀이 4일 699,000원~

무안 ↔ 몽골 가볍고, 상품질도 높

★6월 15일 ~ 8월 28일 까지(매주 수,토 출발)★

- ◆ [수요일] 4일 1,098,000원~ / [토요일] 5일 1,148,000원~
- ◆ [항공+호텔] 4일 649,000원~ / 5일 699,000원~
- ◆ [항공] 무안→울란바토르 편도 25만원 / 왕복 50만원 *몽골인예환함
- ◆ [항공특가] 6/15 출발 울란바토르→무안 편도 18만원

무안 ↔ 달랏(비엠텐항공)

7월 24일 ~ 3월 28일 까지(매주 수,토 출발)

[수요일출발] 4일 / [토요일출발] 5일 749,000원~

무안 ↔ 동경 매일출발 일본의 수도 도쿄를 무안에서!

★최저모객인원 7명 출발보장★

- ◆ [정통] 동경&하코네 3일(디즈니랜드선택관광) 799,000원~
- ◆ [정통] 동경&하코네 4일(디즈니랜드선택관광) 949,000원~

무안 ↔ 대만 정기편(제주항공)

매주 월,화,수,목,금,토,일 매일출발 3박4일

- ◆ [타이베이일주] 스펀,단수이,야류,지우펀 579,000원~
- ◆ [화련] 화련,태로각,지우펀,야류 629,000원~

무안 ↔ 블라디보스톡(제주항공)

- ◆ [월,수,토요일 출발] 블라디+우수리스크 2박4일 779,000원~
- ◆ [월,수,금요일 출발] 블라디+연길 5일 or 6일 949,000원~

※모든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 포함사항이 다르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 제등다2003-1호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